

2200만개 팔린 '포켓몬빵'... 年 매출 3조 기대

metro 관심종목

SPC삼립

포켓몬빵 효과로 '제2전성기' 월간 기준 판매량 증가 추세

1분기 매출 7248억 역대 최대 증가도 3개월 만에 46% 경증

SPC삼립이 포켓몬빵 효과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본업인 베이커리 부문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 이어 올해 식음료 매출 3조 클럽의 네번째 기업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SPC삼립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0.74%) 상승한 8만1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월 말 포켓몬빵 신제품을 재출시한 이후 SPC삼립의 주가는 6만6900원에서 9만8100원까지 46%가량 치솟았다. 포켓몬빵은 띠띠부질(띠었다 붙였다)하는 스티커) 수집 열풍을 타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후 국내외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8

<SPC삼립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SK증권	12만7000원
신한금융투자	9만6000원

만1000원선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SPC삼립의 매출액은 7248억원,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30.1% 증가한 수치다.

김정옥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베이커리, 푸드, 브랜드·휴게소, GFS(Global Food Service) 전 사업부가 고루 성장했다"며 "포켓몬빵의 판매 호조로 인해 맥분 판가 상승 및 브랜드, 휴게소 적자폭이 축소되며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커리 부문 사업 호조가 SPC삼립의 실적 상승 주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커리 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액 175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16.66% 늘었다.

포켓몬빵은 지난 2월 말 출시 이후



40일만에 판매량이 1000만개를 돌파했고,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2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포켓몬빵의 월 매출 기여도는 50억~6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박찬술 SK증권 연구원은 "포켓몬빵의 월간 기준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7일 포켓몬빵 4종을 신규 출시했으며, 냉동 보관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높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SK증권이 12만

7000원, 신한금융투자가 9만6000원으로 SPC삼립의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모두 투자이견 '매수'를 밝혔다. 최근 리오프닝(경제 재개)에 따라 B2B(기업 간 거래) 채널이 회복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조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PC삼립은 기존 베이커리 위주의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안정성을 구가할 수 있다. 추진 중인 신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SPC삼립은 베이커리와 푸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B2B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아우르는 '온니푸드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연결기준 매출 4조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경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대환 기자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롯데건설-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 복합 개발' 1조규모 사업 맞손

롯데건설이 베트남 호찌민시와 '투티엠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호찌민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판 반 마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투티엠 에코스마티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지구는 호찌민시가 베트남 경제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투티엠 지구 5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오피스,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와 아파트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9억달러(약 1조1580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건축계획 승인이 완료 시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

코스닥 상장사인 삼표시멘트가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7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는 이전상장 추진과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합병상 자기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 투명성과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또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인카금융서비스

1분기 매출 899억 전년 대비 16.7% ↑

코스닥 상장기업인 인카금융서비스는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액 899억원, 영업이익 45억원, 당기순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7%, 영업이익은 26.4%, 당기순이익은 25.9%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는 지난해 시행된 1200%를 적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인카금융서비스는 1200%를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강남 매물 출회 미미

금리인상·대출규제 등 눈치 매수인-매도인 모두 관망세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여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이 나왔지만 현장 공인중개업소 취재 결과 매물 출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뚝뚝한 한채'를 선호하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집값 강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팔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두고 있지만 급매로 나온 매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 B공인중개



서울 송파구 거여역 6번 출구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모습. /김대환 기자

업소 대표는 "매물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상시 처럼 간간이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는 2건 정도 나왔다"고 했다.

서초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나은 지 물어보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현재 매물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있다. 6월 1일까지 현

실적으로 집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1년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거래시 해당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 최고 75% 양도세를 부담하게 했다. 지방세(7.5%)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미미한 매물 증가와 강도 높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다주택자의 실제 매매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1205건에서 5월 58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4월 77건에서 5월 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91건에서 5건 송파구는 61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분양시장 활기... 9곳서 5037가구 청약

분양 캘린더

수원·파주 '푸르지오' 단지 주목 충북 제천 2개단지서 1순위 청약

5월 셋째주에는 아파트 등 분양시장 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9

곳에서 총 5037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주 공급량인 4135가구보다 21.81%(902가구) 늘어난 수치다.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가 눈에 띈다. 수원시에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796가구)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770가구) 2개 단지, 파주시에서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664실)이 청

약 접수를 받는다.

한동안 공급이 없었던 충북 제천시에서는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564가구), '제천하이더스카이'(713가구) 2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모텔하우스는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e편한세상 시티 향동 마리나', '힐스테이트 영광' 등 6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등 6곳에서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e편한세상 시티 향동 마리나' 투시도. /리얼투데이